

국내여행객 늘어 항공편 증편...해외여행길 막혀 개점휴업

코로나19로 희비 엇갈린 여수공항·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국외로 빠져나가지 못한 내국인 관광객들이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으로 몰리면서 여수공항 신규 취항 항공사가 늘고 항공편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중국·동남아시아 등 국제선 항공편이 주력인 무안공항은 지난 3월부터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공항은 국내 1~2위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과 진에어, 소형항공사(50인승 이하)인 하이 에어가 잇따라 신규 취항하면서 지난해보다 운항횟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4개 항공사가 김포는 매일 4회에서 6회로, 제주는 3회에서 5회로 증편됐다. 수요가 많은 주말에는 제주항공에서 김포노선을 1회 추가 운항한다.

코로나 19 사태와 그로 인한 적자 심화로 대한항공이 지난 3월부터 여수공항 운항을 중단했지만, 되레 여수공항 항공편은 늘어나고 있다.

전남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작고, 여수·순천이 국내 관광에서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전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히자 국내 관광객 등 여수공항 여객 수요가 늘어났고,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규 취항에 나서거나 항공기를 증편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여수, 저가항공사 신규취항

김포·제주노선 증편 잇따라

무안, 국내·국제선 운항 중단

7월에도 항공기 운항 예정 없어

특히 여수공항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개통된 전라선 고속철도(KTX)의 영향으로 항공기 이용객 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추세 반전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관광 수요 증가와 최근 4개의 저비용 항공사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김포·제주 노선 항공료도 기존 5~7만원대에서 최저 1~2만원대의 특가운임까지 생겨났다. 여수공항은 지난 4월까지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43% 이상 감소했으나 최근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증편하고 신규 취항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19 사태 이후 여수공항 뿐 아니라 강원 양양공항 등 일부 국내 공항 여객 수요가 대폭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3월 이후 이날 현재까지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항공공사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까지 운항이 중단된 상태로, 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7월도 항공기 운항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항공공사 무안국제공항 관계자는 "무안공항에서 정기편을 운영하는 항공사는 국제선의 경우 제주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사천항공인데 3개 항공사 모두 국제선 운항 계획이 없다"며 "국내선(무안-제주)의 경우 운항 항공사인 아시아나항

공 측이 7월 운항이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지난 3월 이후 항공기 운항이 중단·감편되자 지속적인 항공사 협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센티브 확대,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주당 코로나 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

오늘 전북도청서 대책 모색

효성 전주공장 현장 시찰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22일 전라북도청을 방문한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과 송갑석 광주시장 위원장,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 등 호남권 국회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청 대회의실을 찾아 호남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런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호남권 광역단체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개선·추가 대책 등을 발굴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의 경제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 등도 협의한다.

특히, 국난극복위원회는 간담회 이후 한국판 뉴딜사업과 호성첨단소재 전주공장 등을 찾아 현장을 시찰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효성은 최근 탄소섬유, 친환경 에너지 등 신소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과 발을 맞춰나가고 있다. 특히, 효성은 탄소섬유 분야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오는 2028

년까지 전주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강도가 10배나 강하지만 무게는 1/4 수준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제조 등에 있어 친환경 시대를 이끄는 꿈의 첨단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위원장 체제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22일 호남권 간담회 일정을 마치고 24일 활동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 국난극복위의 기간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중요일에 맞춰 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처럼 코로나 사태가 형성되고 있다. 진학, 취업, 실직 등에서 코로나 사태의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한 뒤, "이들을 돕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시대 위원회' 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통일장관 사표 수리...후임에 이인영·임종석 등 거론

안보라인 교체 여부도 주목

통일부 부총리급 격상 목소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함에 따라 후임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 인선은 한반도 위기 국면을 타개할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을 때 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

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을 서두를 전망이다. 북한이 대남 비난 및 군사행동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후임 인선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일부는 서호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여권에서는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임기 4년간 상임위원 활동을 모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했고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 관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도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에 깊숙이 관여한 동시에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여권 인사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입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입각에서는 서호 차관의 내부 승진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향후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지, 아니면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지가 인선의 변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을 낙점한 뒤 안보라인 재정비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그동안 한반도 현안을 다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기존 안보라인에 대한 쇄신론이 불거진 만큼 문 대통령이 유임과 교체 중 어떤 결단을 할지 주목된다.

다. 한편, 입각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장관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지난 1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통일부 장관의 상대는 김여정 제1부부장으로 북한의 제2인자"라면서 "과거처럼 부총리로 승격해서 좀 강한 무기가 있는 분을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통일부 장관은 대북 문제만 바라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미국과도 가서 한바탕해야 한다"면서 "대북문제는 북미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삼각 구도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